

속 기록

1. 회 의 명 : 제 364차 위원회 전체회의
2. 일 시 : 2023. 11. 3(금) 14:02~16:55
3.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4.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배은주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홍성태 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성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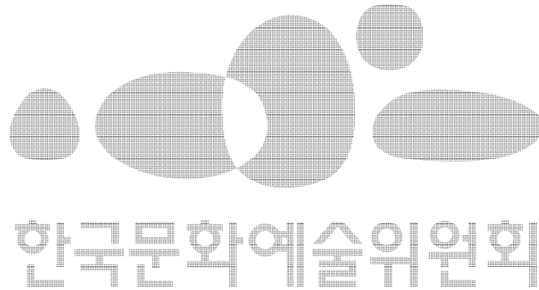
정병국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3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한국-캐나다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심의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총괄부 서유미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전원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9월 22일에 개최한 제363차 전체회의 의결안건은 3건이 상정되었고 모두 원안의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결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21호 2023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한국-캐나다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이 온라인 화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의안 제1021호 2023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한국-캐나다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거쳐서 보고를 드렸던 공동기금 잔여예산 활용 사업입니다. 기존에 총괄기획자 미선정으로 인한 잔여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인 한국과 캐나다의 리서치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지

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당초의 목표에 부합하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총 21건에 대해서 21억 5,100만 원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한 1건이 결격이었고요. 총 20건에 대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3건, 2억 원에 대한 지원을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사업 취지와 당초 총괄 기획자 사업의 미선정 배경과 연계해서 일관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셨는데요. 8페이지를 보시면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 진행 시에는 문학분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학분야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아서 문학심의위원을 제외하고 예술과 기술 융합을 하나의 주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평가해 주실 심의위원님을 비상임 위원님과 협의해서 2인을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오늘 이 결과를 의결해 주시면 바로 결과발표를 진행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22호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안전번호 1022호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을 총 4건의 규정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규정 중에 기본규정에 속하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먼저 보셨으면 규정에 썬표가 빠졌다거나 오탈자가 있다거나 하는 이런 소소한 내용까지 의결을 해야 하나 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기본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개정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규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고요. 여기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만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자리에 별지로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3개의 규정인 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 회의 공개 절차 등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제규정 관리규정을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할 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17페이지 신규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올해 위원회 의결을 하시면서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건은 서면의결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뒤에 붙임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서면의결을 할 때 보신 서식이 있을 텐데요. 그 서식이 그동안 저희 규정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식이 별지 제2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에 “서면심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라는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6조 같은 경우는 별지2호 서식이 추가되었다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9조를 보시면 기존에는 회의록 관련 별지가 2-1호, 2-2호 등으로 되었는데 번호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3-1호, 3-2호, 3-3호, 3-4호로 변경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를 보시면 위원회 보존년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부의 원안, 회의록, 속기록, 서면 결의 등의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오탈자로 썬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18페이지의 제12조입니다. 12조를 보시면 “회의록을 전제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따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령 이름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라고 법률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현행화한 부분입니다.

서식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지 서식인 서면의결서를 추가하였고요. 제1호 별지서식에 ‘주요 골자’ 라고 옛날 표현으로 표기되어 있는 단어를 ‘주요 내용’ 으로 변경한 부분이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서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은 보고를 드린 대로 문구수정입니다. 보통 법령에 있어서 다른 법령하고 저촉이 되거나 상이했을 때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23호 위원회 회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회 회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인데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회 회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금 전에 개정된 위원회 운영규정이 있고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12조를 보면 회의 공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놓아드린 자료의 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제12조를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같은 조 4항을 보시면 “위원회 회의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 위원회 회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률의 서열을 봤을 때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률이라면 그 밑의 시행령으로 들어가거나 시행규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동등한 수준의 규정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에 맨 끝에 제규정 관리규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제규정 관리규정의 제3조를 보시면 ‘용어의 정의’ 라고 해서 위원회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 그리고 규정, 시행세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세칙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을 정한 규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회 회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규정이 아닌 시행세칙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여 시행세칙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사무처 의견으로 의결안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28페이지 신규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규정 명칭을 규정에서 시행세칙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 규정 제7조를 보시면 회의록 등의 공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속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지 제3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첨부한 별지 3호의 서식이라는 것이 새로 만든 서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 별지서식은 만약 법률이 개정되어서 서식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라 굳이 그 서식이 이 규정에 따로 첨부하지 않고요. 개정되는 부분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따르며,” 라고 개정하여 당연히 법률에 따라 그 서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별지서식을 보시면 29페이지에 신청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식에 관행적으로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게 되어 있는데 최근 정보공개에 경향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주민등록과 같은 강한 개인정보가 아닌 생년월일 정도로 축소하여 신청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부분을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시행세칙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대 위원 : 속기록도 공개를 하나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저희가 알리오라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속기록도 7기 위원회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서 별도로 공개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청을 하지 않아도 볼 수는 있지만 일단 7기 위원회 이전의 속기록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24호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이 부분은 34페이지의 신규조문 대비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조문에 “소위원회”으로 표시된 부분을 “소위원회 위원”이라고 수정을 하고 제12조를 보시면 기존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확한 법률 명칭으로 수정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조항에서 “소위원회”이라고 된 부분을 “소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한 부분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안건은 법률에서는 축약어를 쓰지 않게 되어 있는데 축약어를 썼던 겁니다. 원칙대로 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25호 제규정 관리규정 개정(안)입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37페이지 신규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규정에서의 오류나 관련 법률명이 바뀌면 연동되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제규정 관리규정 제5조제4항이나 회의자료 38페이지를 봐주셔도 됩니다. 제5조제4항을 보시면 위원회에서 제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를 한정해 놓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정해 놨

는데요. 1호를 보시면 “법령, 정부의 방침, 정관 또는 다른 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리고 2호는 “조문 일련번호나 문장 형태의 통일, 부적합한 자구의 수정, 별표 및 서식의 개정 또는 폐지 같은 경미한 내용 변경의 경우.” 입니다.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는 위원회 내부의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기본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받는 절차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소소한 오류나 일련번호 수정, 관련 법령이 바뀌거나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변경되는 경우는 굳이 규정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없이 위원장의 결재로 갈음하여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8조인데요. 제8조를 보시면 규정을 개정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관이나 기본규정과 같이 중요한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기본규정이 아닌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의결한다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소소한 오류나 변동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디. 그래서 제3호를 신설하여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규정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개정을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위원회 회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시행세칙으로 바뀌면서 제규정 관리규정에 변경하여 표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26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심의위원회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개정이 되겠는데요. 이 책임심의위원회제도는 기존 심의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도 지원사업이 수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평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2010년도 사업부터 2014년도 지원사업까지 진행했던 바가 있고요. 통상적인 구성은 장르별 5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5명에는 외부위원 4명 그리고 사무처 내부직원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던 바가 있습니다.

책임심의위원회제도는 지금 당장 2024년도 사업이 11월 중에 심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사업에는 제한적으로 시범 도입을 하고 2025년부터 전면적인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디만, 현재 안으로는 청년예술가지원사업과 창작주체지원사업 연극분야만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아까 저희가 기본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규정상에 이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게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 규정에 보시면 심의위원은 ‘외부인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외부인사와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 직원의 포함 여부 및 인원 수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고 개정해서 책임심의위원회제도를 시범 도입할 수 있는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경미한 내용입니다.

붙임 양식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인데요.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게 되면 심의위원 참여 동의서 그리고 공정심의 서약서에 대해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서명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예’, ‘아

니오'에 대한 체크박스를 넣는 부분하고 저희가 “공정심의 서약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새로 제정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도 준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양식상의 세부적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에는 시범적으로 책임심의위원제도를 도입하게 될텐데 2025년 전면적인 도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은 저희가 간담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면적으로 심의제도를 개편했고 이번에 도입한 심의제도는 전담심의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 온 것과 차별화를 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의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심의한 사람들이 체크를 해서 책임성을 좀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개편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책임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아예 책임심의제도, 영국처럼 시스템화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의 받은 사무처에서 추천을 하고 받은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사무처 직원이 참여를 해서 끝까지 그 담당자가 팔로우를 해 나가면 결국은 책임성이 더 강화가 되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도 좀 더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2개 사업 정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사무처 직원들은 부서를 이동하지 않고 사무처 직원의 역량이 전문화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논의)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유보 처리를 하고 해당 내용은 추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5조 말고 붙임 문서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이 필요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떤 거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양식 부분에서 ‘예’, ‘아니오’라고 체크박스를 넣은 부분하고.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나중에 처리하세요. 별도로 나눠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것은 같은 조항이잖아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같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규정 내의 조항이 다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다른 사업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이번 지원심의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서 변경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참여 동의서에는 기존에 맨 뒤에 서명만 하던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박스에 표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심의 서약서에는 심의하실 때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술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는 규정 항목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새로 추가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도 준수합니다.” 라는 항목이 하나 추가된 내용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이게 5조에 있는 겁니까?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조항이 아니고 붙임 양식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별도로 1026-1호로 안건으로 변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심의위원 참여 동의서, 공정심의 서약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보고를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안건은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접수결과 등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인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접수결과에 대해서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접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5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으로 9월 25일에 공고가 나갔고요. 10월 4일부터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창작영역과 정책영역으로 나눠서 접수 마감일을 분리했었고요. 10월 26일에 창작영역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10월 30일에 정책영역까지 해서 현재 모든 지원신청의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8,245건 그리고 지원신청 금액만 따졌을 때 2,496억 원이 지원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현재 신청된 내역은 아래의 표로 정리를 해 놓았고요. 2023년도 대비 신청건수와 공모예산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여기 공모예산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2024년도 사업의 전체 공모예산은 710억인데 그중에 작년에 이미 다년간 지원으로 기선정되어 확정된 예산이 10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번 공모는 아니고 내년 연도 중반에 별도로 공모하게 되는 문학의 발표유형 그리고 국제공동예술기금사업을 제외했을 때가 600억 원이 됩니다. 이번 공모 600억 원에 현재 총 8,245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공모에서 책임심의위원제도 외에 별도, 그러니까 분리 공모를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지원액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비중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7대 3의 비중으로 나눠서 내년도 중반에도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과 청년예술가도약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예산을 남겨놨다가 내년도 상반기에 별도 공모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과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확정되고 나면 이번 회의 이후에 서면 의결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요일에 접수를 마감하고 현재 자료들을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이라서 디테일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각 장르의 사업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접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원심의는 11월 21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일 지원심의가 진행돼서 한 달 간 심의가 진행되는데요. 12월 22일까지 지원심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12월 29일에 심의 결과를 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해서 최종 의결을 하고 내년도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현재 계획된 일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예산의 일부를 아껴서 내년에 한 번 더 지원사업을 하겠다. 수시지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고 여쭙봤어요. 그런데 45페이지를 보면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을 수시로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올해의 예산을 아껴서 한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200여 건이 지원했고 예산은 43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00건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27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것을..... 그래서 제가 여쭙봤어요. “공모를 이렇게 하면 선정률이 몇 %가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10%가 채 안될 거라고 합니다. 이 예산을 다 써도요. 왜냐하면 160건 정도를 선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나누면 100건 정도밖에 선정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가 안 되는데요. 처음 문화예술위원회 워크숍을 할 때 저희가 모두 패닉에 빠졌던 것이 공모에 선정되는 선정률이 20%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22% 정도입니다.

김미라 위원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률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 때는 안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십시오.” 라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그 과정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삭감이 돼서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이 27억으로 확 줄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 되고 내년에 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나누게 되면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굉장히 예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젊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심의제도도 바꿨지만 공모사업의 틀도 많이 바꿨습니다. 내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해서 바꿨지만 어쨌든 외부의 지원자 입장에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선정률이 너무 낮아지면 결국 그 모든 여러 가지의 민원이나 불만의 부분들이 바뀐 공모제도로 향할 수도 있고 이번 위원회로 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모제도의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많이 설명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공청회도 했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를 주는 것은 공모 선정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더욱 떨어지게 되면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맞는가? 만약에 정말 수시지원, 내년도도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못한 사람들에게 내년도도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특별 예산이나 추가예산 등 예산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올해 지원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내년에 지원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정페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을 주면서 그 엄청난 서류들을 또 만들게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올해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에 또 하자는 부분이 너무 쉽게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저는 이 지표를 보고 궁금하게 있어서 여쭙는데요. 예컨대 신나는예술여행을 보자면 각각 그 장르마다 신청건수가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럴 때는 신청건수별 예산 비율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신나는예술여행 같은 경우는 문학 9건, 시각예술 32건인데 연극, 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지원율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야에서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많이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 적게 된 데는 적게 돼서 선정되기가 더 쉬운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통상적으로 단일사업 안에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부터 적용하는 룰이 있습니다. 각 장르별 전년도에 선정건수와 선정금액, 올해 신청건수와 신청비율 같이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합니다. 4:1:4:1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는데요. 전년도의 내역과 올해 신청내역을 같이 합쳐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게 공통적인 룰입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많이 신청했으면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그렇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각 위원 : 장르마다 신청건수가 좀 다른데요. 보니까 공연예술, 특히 창작주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배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른 장르하고는 편차가 있는데요. 공연예술 창작주체의 건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다른 사업에 비하면 신청할 때 신청조건에서 제한하고 있는 요건이 많습니다. 그냥 공연단체라고 아무 단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김진각 위원 : 이게 핵심 사업이잖아요. 창작영역에서는 지원규모도 가장 많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겠어요. 신청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신청자격, 신청조건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공청회 과정에서 창작주체에 대한 지원조건들을 많이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안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완화한 것이 이번 공고의 내용입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토막이 나면 사실상 예산도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줄면요.

이훈경 위원 : 아마 그게 중복지원이 안 되면서 가능한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쪽의 지원율이 떨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보통 접수가 끝나고 나면 첨부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다 보니 이번 주 월요일이 접수마감이라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3개 사업을 1개로 통합하면서 1개만 신청을 하게 하다 보니까 중복신청을 하던 사업들이 싹 사라져서 신청건수가 확 줄어든 것이고요. 작년과 올해의 편차는 그만큼이 다 중복신청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업들은 각각의 이유를 다 따져봐야 하는데요. 공연예술 창작산실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연 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로 중복지원을 했던 것들이 통합되면서 줄어들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훈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 가장 타당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전체적으로 44개였던 사업의 규모가 16개로 줄었잖아요. 44개니까 이쪽 저쪽으로 되어 있던 게 합쳐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던 게 가능하면 중복 지원이라든가 창작자들이 찾아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신청 건수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아마 없을 겁니다.

김미라 위원 :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2개 사업,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사업과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이 내년에도 하는 2차례 사업으로 수시지원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청년예술가도약사업은 건수도 많은데 예산이 줄어서 이 부분을 2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 중에, 예산이 늘었거나 가능한 지원 건수가 많은 그런 사업을 수시지원으로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여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은 올해도 분산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가 있어 수시로 공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도 올해 분산해서 하지 않았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아니요. 그냥 한 번에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김미라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신청 건수 분석을 해 보고요. 현장의 요구가 많은 분야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수시로 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김미라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 접수된 내용과 예산 삭감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오늘은 접수에 대한 현황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리 공모를 하는 부분은, 이미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의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구체화 되면 서면 의결이나 다른 형태로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보고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효은 노조위원장께서 나주로 내려가셔야 해서 먼저 말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논의)

정병국 위원장 : 예. 김효은 노조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고안건입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유병은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 TF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 TF팀장 : 지난 10월 2일자로 아르코미술관 산하 임시조직으로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 TF가 총 5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었어요. 특별전시의 예술감독은 임근혜 미술관장님이 겸직하고 계십니다. 저희 TF는 특별전시뿐만 아니라 기존에 미술관에서 진행했던 한국관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및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전시가 기획되었어요. 행사기간은 2024년 4월 18일부터 9월 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개막 예정입니다. 4월 17일은 한국관 개막 일정으로 4월 18일로 조율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이탈리아 베니스 말타기사단 수도원으로 12세기에 만들어진 중세 수도원입니다. 전시나 행사의 세부구성 내용은 30년간 한국관을 거쳐 가셨던 우리나라 주요 미술작가 39인의 하이라이트와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하려 하고요. 다른 하나로는 베니스비엔날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할 수 있고 차세대 이머징 아티스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끌어갈 퍼블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축은 내년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진행하는 한국관이나 특별전시뿐만 아니라 광주비엔날레나 Nine Dragons Heads나 유영국 선생님이 병행 전시로 참가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윤신, 이강승 작가님이 본전시에 참여하십니다. 또한 2015년에 한국관 커미셔너를 지내셨던 이숙경 큐레이터님이 일본관 총감독을 진행하시고 김해주 기획자가 싱가포르관 예술감독으로 참여해서 2023년에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의 K아트 물결들이 베니스로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관이나 저희 특별전시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통합 홍보를 하고 리셉션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전시에 참여하시는 김윤신, 이강승 작가님께서는 운송비와 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베니스비엔날레 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총예산 21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올해 예산, 17억 원은 내년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표를 보시면 전시, 홍보, 개막행사, 공간임차, 현지대행업무, 작가지원, 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현지대행 업무나 공간임차 같

은 경우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해당사에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방금 보고를 드린 대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워낙 시간도 없고 일이 방대한데 마침 불행 중 다행이라고 문화공간조성기획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아시다시피 당인리발전소 소관이 문체부로 다시 넘어가면서 팀의 역할이 없어졌는데요. 마침 그 팀이 해 왔던 일이나 지난번 IFACCA 총회 때 함께 가서 현장에서 많은 상황들을 봤고 과거 국제 업무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팀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를 드린 대로 지금 특별전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주신 회의자료를 보면서 11번, 12번에 직접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해외의 어떤 공간에서 전시를 하거나 행사를 해 보려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는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베니스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배, 3배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직접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봤고 문제가 없이 의결을 하면 행정적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될까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또는 문제가 없게 하려면 저희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번 항목에 작가 아티스트피를 보시면 39명인데 예산이 5,800만 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듣고 1인당 5,800만 원씩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9인에게 5,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총예산이 20억이 넘고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각각의 아티스트피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정말 작가들이 내가 과거 베니스비엔날레의 작가였던 명예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OK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술위원회에서 참여해 주시는 작가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아티스트피나 여러 가지 대우를 더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공공기관에서 전시를 하면 예산이 없어요. 명예로 열정페이로 하세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공공기관이 향후에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작가를 대우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술감독이신 임근혜 관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말타 수도원이죠. 거기에서 역대 작가 선생님 39인을 모시고요. 자료의 역대 참여작가 명단을 보니까 정말 지금은 한번 모시기도 어려운 대작가가 되셨어요. 이 베니스비엔날레 참가를 계기로 해서 이분들이 국제적인 작가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도 우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들었고요. 오늘 간담회에서도 우연치 않게 백남준 선생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하는 특별전 어디에도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한 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백남준 선생님 작품을 한 점이라도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마침 우리 감독님도 그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어떤 작품을 딱 하자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소장이나 전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특별전에 백남준 선생님 작품 한 점 정도는 상징적으로 전시해서 우리나라의 작가임을 정말 감사하며 자랑스러운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우리 김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좋은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 아티스트피는 어떻게 작가와 협의를 해

서 책정이 된 것인가요?

임근혜 미술관장 : 참여 작가의 수, 전시에 대한 기여도, 기간 등을 고려한 산식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산식을 반영하여 책정한 금액이고요. 아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품제작 지원비라고 해서 따로 항목을 잡아 놓은 게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작이나 야외작품을 하는 경우 비용을 따로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작가들이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다음에 백남준 선생님은 우리가 베니스비엔날레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빙 작업을 한다고 하면 백남준 선생님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뉴나 현지대행 업무는 저희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5월에 출장을 갔다가 벨기에에서 EU문화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EU하고 공동기금사업을 제안했고 그것에 대해서 베니스에 간다고 했더니 “베니스에서 작업하고 있는 팀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봐라.” 그래서 가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컨설팅도 하고 대행을 하는 엄청난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지를 얘기했고 임근혜 관장님이 그 뒤에 출장을 가서 그분들과 만났고 그분들이 장소를 섭외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전반적으로 현지 홍보부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늦게 시작했지만 말타 수도 원, 그 장소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니스비엔날레를 통해서 갤러리 차원에서 또는 단체 차원에서 또는 큐레이터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일했던 분들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과 자문회의 도 운영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만찬, 파티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 전시로, 또 만찬에 초청을 해서 끌어 들이느냐가 관건이라서 아주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은,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3년도 당시에는 한국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남준 선생님이 독일관에 초대작가로 참석하셔서 그해에 황금사자상을 받게 됩니다. 황금사자상을 받고 나서 베니스 시장하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백남준 선생님이 한국관을 지어주면 남북이 공동으로 전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베니스 시의 방침은 더 이상 국가관을 짓지를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국가관을 짓는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하게 되니 베니스 시장이 그 당시에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하면 내가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OK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백남준 선생님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국가에서 그것을 해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가를 빛낸 사람들에게 ‘신한국인상’을 줬어요. 당시에 정명훈 선생님이 피아노 콩쿠르에 가서 상을 받으셔서 두 분이 신한국인상을 받아 대통령 접견을 하는 자리인데 공교롭게 제가 그분들을 안내한 겁니다. 거기에서 오고 갔던 대화들이 생생합니다. 모시고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백남준 선생님이 넥타이도 메고 이상한 옷을 입었는데 영성한 겁니다. 주머니가 불룩하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을 접견한다고 해서 남대문시장에 가서 넥타이도 사고 재킷도 샀다고요. 접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국가관 건립을 어렵게 동의 받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OK를 하고 추진이 돼서 1995년도에 한국관이 개관된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 3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남준 선생님이 2층 대통령실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중간에 주머니에서 뒤편을 꺼내요. 꺼내는데 보니까 박카스입니다. 마시면서 “내가 대통령 앞에서 답답해서 혼났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목도했던 일도 있었고 이제 한국관 30주년 전시를 가서 하니깐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관을 설계했던 분이 이태리 베니스 대학의 만쿠조 교수님과 한국에서는 김석철 교수님이 공동으로 설계하신 겁니다. 김석철 교수님은 돌아가셨고 만쿠조 교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난 5월

에 갔을 때 그분을 뵈고 마침 이번에 서울시 건축전을 하는데 그분이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술관에서 여태까지 한국관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아무런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의 통역을 담당하고 안내했던 교수님들을 다 찾아서 저희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만쿠조 교수님이 그 과정을 쪽 설명하게 하고 다른 교수님이 보태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비디오로 만들고 방송 다큐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쿠조 교수님도 연세가 88세인가 그런데요. 그분이 1만 점이나 되는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베니스 대학에 기증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우를 하고 예술기록원에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채록을 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기증하기로 하셨어요. 그것을 안내하셨던 명지대학의 전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했다.” 그리고 우리 아르코 직원들이 이분들을 모시고 정말 열심히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사서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감동을 해서 칼럼이나 글을 써서 홍보하고 싶다고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0년사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미술 장르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과 올해 프리즈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그분들개인이 하지 못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하자. 그렇게 해서 광주비엔날레도 나가고 유영국 선생님도 나가시는 데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같이 홍보해서 전세계 미술계의 인사들에게 한국미술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3년 제5차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안건은 2가지입니다. 아르코 비전2030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과 50주년 기념사업 및 정책연구 추진현황 2가지인데요. 아르코 비전2030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은 56쪽과 57쪽의 흐름을 보시면 전문가와 1차, 2차 컨설팅을 거쳐서 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오른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틀과 시스템은 목표, 과제, 세부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인 것 같고 아주 막연한 얘기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성과지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몇 가지의 위당을 빼놓고는 사실상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을 한 부분은 아래 색깔로 표시된 부분으로 목표, 전략과제, 세부과제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전 것과 비교해 보시면 자구가 조금 바뀌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6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바뀌분 것은 예술의 근본적 가치를 많이 강조했고 내부의 조직 그리고 자원관리 등 역량을 강화하는 정도의 변화를 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장래를 위한 비전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예술위원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사업 및 정책연구 추진현황에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연말에 될 것 같고요.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11월 8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인터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정책연구는 내부인력으로 “위원회 역할진단과 향후 과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이 끝나면 이 부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 과제, 세부과제로 나가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주는 흐름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르코 50주년 기념사업 및 정책연구 추진현황을 비롯해서 별도로 내년도

에 정책연구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혹시 11월 8일에 진행되는 심포지엄 같은 경우 참여를 못하면 추후에 볼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정갑영 위원 : 보통 심포지엄을 하면 심포지엄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책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병국 위원장 : 영상기록은 다 할 겁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영상은 풀버전은 아니고 편집본으로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본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은 아르코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안에 대해서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정갑영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 다음 위원회 회의 때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어 반영하고자 보고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된 최종안이 61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은 비전이나 전략목표를 건드리지 않은 세부과제 변경의 톨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전2030이 만들어졌지만 한번 만들어진 비전을 가지고 수정 없이 10년을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략과제나 세부과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세부과제 수정을 좀 진행하고 아까 정갑영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8기 위원회의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전체가 개선되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내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해 조금씩이라도 바뀐 부분을 반영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8기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세부과제 단위에서라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 표를 보시면 전후 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3대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문화예술의 가치 공유, 기관 운영체계 혁신이라는 3대 전략목표 하에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은 ‘예술창작 자율성 확보’ 그리고 ‘예술창작 인프라 구축’ 이라는 2개의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가치 공유에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와 ‘문화예술 가치 인식 향상’ 그리고 기관 운영체계 혁신에서는 ‘사회적 책무 이행’, ‘조직·자원관리 고도화’ 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6대 전략과제 1개당 2개의 세부과제가 반영이 되어서 총 12개의 세부과제가 만들어졌고 이 세부과제 별로 저희 사업들이 연결이 됩니다. 현장중심 지원체계 구축이라면 지원사업과 관련된 올해의 지원사업체계

개편이라든가 지원심의제도 개편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과제의 실행과제와 실행내용으로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2023년 사업성과가 이 롤링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과제에 연결돼서 내년도 보고서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 위원회 때 의결안건으로 올려서 의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주셔도 좋고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1~2주 안에 의견을 주시면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 위원회 때 의결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보고안건은 제8차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예. 3가지 정도를 논의했는데요. 9월에 있었던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과 관련된 리뷰를 했고요. 예술나무 후원 캠페인 운영계획 관련 그리고 예술분야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 외형적으로 성공을 한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9,000명 가까운 관람객이 왔고 잠재후원자 2,000명 이상이 모인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사 자체를 보자면,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 문제나 전체 프로그램 문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음향 문제나 무대의 배치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 이것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행사 자체가 예술후원을 이끌어낼 만한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아티스트들이 대중성이 있는, 소위 대중예술인 중심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만약 내년에도 한다면 순수예술 쪽의 아티스트를 배치시켜서 균형을 이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다고 하면 페스티벌 형식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녹일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나무 후원 캠페인 운영계획을 또 다른 안건으로 다뤘는데요. 이것은 71쪽에 캠페인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예술나무 후원 캠페인에 필요한 운영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기부금에서 일부를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갖고 있는 골프장으로 뉴서울CC가 있는데요. 뉴서울CC를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계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서울CC에서 앞으로 골프장 고객을 대상으로 후원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해도 세제 혜택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지난 예술위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안 그래도 전반적인 예술후원 관련한 종합적인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시켜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토론회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전에 정비 작업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 포레스트 페스

티별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메세나협회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엄히고설켜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운드테이블이든 세미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후원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냥 기업 자체적 결정에 의해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인증마크를 주고 상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기업이 어느 예술단체나 예술기관에 예산지원을 하면 몇 %라도,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그것이 누적되어야 규모 있게 쓸 수가 있고 생색을 내게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기업의 개별 사업으로 끝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홍보해 주지 않고, 지원은 후속적으로 인증만 해주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업이 매출액의 몇 프로 이상을 후원했고 예술나무를 심으면 전부다 평가를 해서 가칭 문화지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연말에 기업별로 발표하고 문화지수의 평점이 나오면 그것을 그 회사의 기업상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개발해 주시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후원을 해도 일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물어보면 “우리가 생색을 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상을 주는 것, 의미 있는 상을 주는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 대표 분이 옥관문화훈장을 받으셨지요? 한미약품에서요. 이번에 메세나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한미약품이 한미 뮤지엄. 사진 전문 뮤지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요. 이번에 옥관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 큰 행사를 잘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감사한데요. 관람인원과 신규후원자 그리고 구독자 수치가 나와 있는데 애초에 예상하신 관람인원이나 신규후원자 목표 수치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목표치는 저희들이 1만 명을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체육진흥공단 측에서 이를 만에 5,000장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냥 앉아서 하는 거면 7,00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표된 것이 6,300장이 매표되었고 나머지는 초청을 해서 약 9,000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대치의 관람객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후원금을 직접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처음부터 생각했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게 되면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200명만 확보를 해도 성공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정기후원을 하겠다고 쓰신 분이 69명이고 일시적으로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내고 가신 분도 있어요. 220명이 현장에서 일시 기부를 하셨구요. 이것은 의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르크예술나무 후원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올해로 1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 정기후원자가 260명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정기후원자 69명이 모집된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221명을 모은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보고 2,000여 명의 잠재후원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술위원회가 하는 행사나 예술나무 후원회의 의미나 중요성을 홍보하면 어느 시점에는 저희들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이것을 알려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10명씩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명씩 하고요.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정기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1~2명을 더 끌고 오고요. 적극적으로 알려야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적극성을 갖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하는데 있어서 후원자가 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무슨 멤버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창작된 공연에 대해서 몇

%의 할인을 준다든지, 1년에 몇 번의 무료티켓을 주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아르코라운지클럽 1기 30명 수업이 2번 더 하면 끝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참가비를 받았는데 회원으로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기, 2기를 진행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후원자들을 더 확보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후원자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왜 후원금을 내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셨듯이 정부의 예산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평균 선정률이 22%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예술계의 지원시스템의 90%가 정부예산입니다. 정부예산이 90%고 사회적 후원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0.2%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70%가 자체수입이고 20%가 사회적 후원이며 10%가 정부예산 시스템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부예산의 50%만이라도 사회적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문화예술계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아르코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은 이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창작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있어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뉴서울 골프장을 개편하려고 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하는 골프장이 왜 일반 골프장과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더 비싸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프장의 설립목적은 문예진흥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경영을 해야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아르코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골프장에서 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품격 있고 품위 있는 골프장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회원들이 다른 골프장에서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 향유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무 책임자들과 골프장에 가서 회원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의 취지도 이야기를 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그날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고요. “모든 사람들이 후원 회원이 되겠다.” 고 했는데요. 회원들이 2,000명인데요.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후원 회원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그래서 골프장과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최소 10명 이상씩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관련해서 9월 23일 축제에 오시지 못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축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후원을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5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기부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보고안건은 2023년 심의제도운영개선TF 10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장인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주 위원 : 심의제도개선TF 10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9일에 10차 회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략하게라도 그동안 저희가 한 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의결

안건으로 올라왔던 1026호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고 마침 저희 TF에서 진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별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의견을 들으면서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든 점이 뭐냐 하면, 같은 용어인데 약간 의미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서 저희 TF에서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의결안건 때문에 아마 사무처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나눠드린 것 같아요. 심의위원제도 개선(안)이요.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3쪽인데요. 보시면 책임심의위원제도가 구성되어 왔던 현황들이 있어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보시면 장르별로 5명 정도가 1년 정도의 사업을 그야말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이후로는 심의위원 후보단을 확대하여 운영되었죠. 그런데 그 후보단이 자천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다보니 후보단의 전문성이 의심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러면 후보단 외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 보자고 한 것이 전담심의위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TF에서는 심의제도 운영개선을 시작하면서 후보단부터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고요. 그 취지는 전담심의위원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은 어떻게 됐든 후보단을 잘 꾸려서 그 안에서 구성을 하자.” 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담심의위원, 책임심의위원 후보단 등이 혼재가 되면서 약간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후보단이 재정비가 되었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요. 하지만 도와주셔서 잘 정리가 되었고요. 올해부터 그것들이 반영돼서 진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안건 1026호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일단은 보류하고 더 고민하는 것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회의자료 73쪽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3번에 마지막 회의를 논의하면서 책임심의위원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 TF의 의견은 아닙니다. 사무처의 의견이라고 해야될까요. 물론 잘하기 위한 의견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그리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TF는 후보단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저희 TF의 미션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지만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낸 지금의 후보단이 책임심의위원제도와 기존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의 장점들을 모아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운영했던 책임심의제도는 1개 장르에서 5명 정도 선별해서는 물리적으로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너무 많고 지원액수도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지금의 후보단을 재정비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하실 거고 사무처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행정처와 의견을 나누실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임심의제도이든 아니든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이해를 하는 부분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TF를 종료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마지막 보고안건입니다. 2023년 뉴서울CC 운영개선 TF 5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박우영 경영지원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위원 :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홍성태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뉴서울CC가 서울 근교에 있는 게 굉장한 강점이고 좋은 점인데요. 잔디나 시설, 장비 등이 너무 낡았습니다. 매우 낡았는데 그동안 투자가 전혀 안 이루어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컨설팅을 할 업체를 공모했으나 1차 유찰이 되었고 두 번째로 삼정회계법인이 응모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결과는 75쪽에 나온 것처럼 “그린피를 인상하면 좋겠다.”, “라이트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휴장일수를 감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 부문을 개선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를 제대로 잘 분석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새 경영진도 오고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셔서 내부에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별 효력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들을 중심으로 문화적 체험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겸비한 특색 있는 골프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원하는 흡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뉴서울 골프장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단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뉴서울 골프장의 수익금으로 우리 문예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매년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결과 이 골프장이 그린피도 올리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올려서 수익을 늘리려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들어갈 돈이 125억 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은 그 골프장을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람들이 값아 먹은 겁니다. 전혀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데 매년 똑같이 25억을 갖고 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골프장 잔디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배수도 안 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잔디 관리를 하는 기계도 구입하지 않아서 인근 골프장에서 빌려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계속 이것을 매각하라고 하는데 매각이 가능한지를 보니까 매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회원이 2,000명이 되다 보니까 인당 가격이 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6,000억 원입니다. 그것을 대략 따져봐도 일반 기업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요구했던 건 재투자를 해서 골프장 그린피를 올리면 잘하면 7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125억을 투자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우선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10여 년 전에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리모델링할 돈이 없어서 특별회원으로 1인당 10억 원짜리 8개 구좌를 만들어 특별회원에게 분양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게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게 되니까 돈을 모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80억을 올해 전부 다 공탁을 했는데요. 특별회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문번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았고 “공탁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해서 공탁을 한 단계고요. 일단 특별회원 자격은 정지한 상황

입니다. 특별회원을 정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더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라고 하면 매각할 수 없는 근거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인력이 노조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계속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강제로 퇴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남는 인력은 야간개장 등 추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유휴인력을 돌려서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들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리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홍성태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IFACCA 총회에 저희가 2025년도 유치(안)을 제안했다는 것을 보고드렸고요. 원래는 제가 지난 주말에 이 건으로 인해서 아부다비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IFACCA 이사회가 열려서 그 자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테니까 거기에 와서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회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회의를 했고요. 지난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온라인 상으로 PT를 했고요. 제가 모두 인사를 하고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이 자세한 내용을 20분에 걸쳐서 PT를 했고 그 뒤에 이사들의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했고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고 20분 뒤에 다시 회의가 속개되었는데요. 위원들끼리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한국이 2025년에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25년이지만 올해부터 장소섭의를 해야 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장애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자연재해나 정치적인 탄압 또는 기술격차 등을 종합해서 다루되 그중에서 기술로 인한 장벽, 지평 등을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IFACCA 총회가 선언문 채택으로 끝났는데 제가 지난 5월 IFACCA 총회에서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과물로 실천되는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때 제가 다음에 저희가 개최하면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제안했는데 제안한 내용은 우리가 APE 캠프를 합니다. 아티스트, 프로듀서, 엔지니어 3개 분야의 청년 100명을 선발해서 2박 3일 동안 합숙하고 그 기간 동안 교육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해서 5명을 1개 조로 짜서 밤을 새워 프로젝트 기획안을 만들고 그것을 발표해서 순위를 정하고 선정되면 해외연수와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지원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번 IFACCA 총회에서 제가 이 사례를 얘기했더니 전세계에서 너무 관심 있어 하고 “함께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똑같이 선발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합숙하고 토론하며 강의하고요. 강의하는 것도 총회의 일환으로 해서 선정되면 우리가 핸들링 하는 팀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핸들링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나라에 넘겨줘서 글로벌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제안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안한 메인장소는 DDP고요. 그리고 청계천8가에 있는 호텔을 메인 호텔로 제안을 했고 우리 아르코예술극장에서도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찬. 한국의 문화와 한국 곳곳의 유명한 장소를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를 들어 위원장 만찬을 가구박물관에서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안이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국감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특별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임기 때는 아닌

데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 중에 사업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정된 단체가 조 총련 가무단을 초청하는데 절차를 어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나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면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그 뒤에 공모기준에 접촉 승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기준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2021년도부터 2022년도에 문제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조건 중에 접촉 승인서 제출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상위법을 어긴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법을 우리 규정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본부감사를 해라.” 해서 본부감사를 받습니다. 그것 1건이 있었고 다른 건은 없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경 위원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이훈경 위원 : 아까 안전번호 1026호가 보류되면서 거기에 따른 질문인데요. 지금 창작주체 심의위원을 추천하고 계시죠? 11월 9일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메일을 받아서요. 맞지 않나요?

정종열 위원 : 아직 안 왔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는 진작에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책임심의제도 때문에 1명을 제외하고 심의위원을 제안해 달라는 사안이 있어서 오늘 회의 이후에 후보단을 추천하려고 보류 중인데요. 오늘 이 건이 보류 되었는데 인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메일을 다시 주시는 건지?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그 메일을 받고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현안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진도가 빠른 공연예술 쪽도 있지만 다른 분야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부에서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고요. 특히 방금 논의하셨던 2건은 그때까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주신 메일은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송시경 사무처장 : 어쨌든 풀에서 책임심의제도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창작주체의 연극.

정병국 위원장 :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추천하는 것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여기 안전이나 보고안전 말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실무진에서 보고할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11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 해서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베니스비엔날레에 가자는 말씀.

정병국 위원장 : 예산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 드릴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니스비엔날레는 전 세계에서 그해 미술의 트렌드를 알리는 가장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때라도 한 번씩 가보셔야 되거든요. 그 트렌드를 보려면요. 정말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2년에 한 번이니까요.

김미라 위원 : 그 기간 중에 숙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행사를 언제하냐고 물어봤던 게 올해 숙박을 잡아놓지 않으면 내년에는 힘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무조건 30개 실은 예약해 놓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초청인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원받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조건 30실은 잡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좋은 호텔은 없고요. 전부 다 옛날 집들입니다. 하여튼 잡아놓으면 큰일을 한 겁니다. 해당 기간에 예약이 매우 어렵습니다.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수시 혹은 분할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전화를 다 드리겠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6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회의종료)